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지 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지 원

인 준 서

이지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를 실패공포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481명이었으며,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 학업지연행동 척도, 실패공포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지연행동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성취차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또한 실패공포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 중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실패공포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합리차원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부분 매개하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낮아지고, 낮아진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지연행동,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실패공포,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7
II. 이론적 배경	10
1. 학업지연행동	10
1) 학업지연행동의 정의	10
2)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
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15
2.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18
1) 실패공포의 정의	18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실패공포의 관계	20
3)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22
III. 연구방법	25
1. 연구대상	25
2. 측정도구	27
3. 자료 분석	32

IV. 연구결과	34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34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37
3. 모형 검증	39
1) 측정모형 검증	39
2) 구조모형 검증	41
4. 모형 비교	42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42
2)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43
5. 매개효과	45
V. 논의	47
1. 결과에 대한 논의	47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4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
<표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28
<표 3> 실패공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1
<표 4> 주요 변인의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	36
<표 5>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37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39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41
<표 8>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42
<표 9> 부분매개모형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43
<표 10>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45
<표 11>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 표	46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9
[그림 2] 경쟁모형	9
[그림 3] 측정모형	40
[그림 4]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연행동이란 주관적인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불필요하게 과제 수행을 미루는 행동을 말한다(Solomon & Rothblum, 1984). Milgram과 Tenne(2000)는 지연행동을 과제를 수행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는 특성 혹은 행동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연행동은 경미한 수준부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정도가 다양하며(Burka & Yuen, 1983),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다(박승호, 서은희, 2005). 비임상 성인 집단의 20~25% 정도가 스스로를 ‘만성적인 지연행동자’라고 보고할 만큼(Ferrari, Díaz-Morales, O’Callaghan, Díaz, & Argumedo, 2007; Ferrari & Landreth, 2014) 지연행동은 개인의 삶에 넓게 퍼져있는 보편적인 문제이다(Steel, 2007). 특히 지연행동 가운데 과제의 수행, 시험공부와 같이 학업 장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학업 지연행동이라 한다.

지연행동이 학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emb, Glick과 Spencer(1979)는 대학생들의 지연행동이 낮은 학점과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 학업 수행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으며, 평균 학점과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학업지연행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학업의 성취를 저해하며(남경득, 2013;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Balkis, Duru, & Bulus, 2013; Jackson, 2012; Klassen & Kuzucu, 2009; Tan et al, 2008), 지연행동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낮은

학업 성취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한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그리고 낮은 성취와 부정적인 자기 개념은 학습자로 하여금 우울, 불안, 반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문제와도 관련이 되며(곽유미, 2010; 김광숙, 김정희, 2007; 유지원, 송윤희, 2012; Flett & Hewitt, 2013; Sharma & Kaur, 2011), 현대사회에서 학업뿐만 아니라 직장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것에만 주목하는 문화와 맞물려 삶의 만족도 저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Capan, 2010; Kachgal, Hansen, & Nutter, 2001; Park & Sperling, 2012; Van Eerde, 2003).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은 지연행동 유형 가운데서도 개인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괴로움을 주며, 치료를 통하여 불편함을 감소시키려는 절실함이 느껴지는 행동이다(황임숙, 2008).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이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윤숙경, 1996). 따라서 개인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를 보이는 심각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대학생의 50%가 지연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Haycock, 1993), 일부 연구에서는 70%(Ellis & Knaus, 1977; Ferrari, Johnson, & McCown, 1995)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지연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지연행동을 한다고 보고한 대학생의 95%가 지연행동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O'Brien, 2002), 대학생의 60%가 학업지연행동으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습관 중 하나라고 밝혔다(Knaus, 2004; 강은비, 2013). 이처럼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임성문, 2006; 박승호, 서은희, 2005; Steel,

2007; Ellis & Knuas, 1977; 강은비, 2013), 외국의 경우 학업 측면에 있어 공부와 과제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학습의 양이 가장 많은 집단이 대학생이기 때문이다(황임숙, 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가장 큰 집단이 고등학생일 것으로 예상된다(이혜연, 2009; 임소연, 2013; 홍은순, 2011). 이는 학업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심화된 학습을 하는 시기에 학업지연행동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olomon & Rothblum, 1984; Steel, 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은 우수한 성적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면시간까지 줄여가며 공부에 집중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지연행동으로 인해, 교사로부터 게으르고 나태하며 과제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하지 않는 불성실한 학생이라는 낙인을 얻을 수 있다(Owens & Newbegin, 1997). 이처럼 국내의 교육적 현실과 학업지연행동이 학업성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추상엽, 2008; 황임숙, 2008)를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업지연행동은 공부하는데 보내는 시간, 공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교육과정을 완수하는 것(Miller, Weaver, & Semb, 1974)과 같은 공부 습관과 관련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만성적 지연행동자를 관찰한 임상가들은 학업지연행동은 단일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지, 정서, 행동적 요인 간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Burka & Yuen, 1983; Rothblum, 1990; Fee & Tangney, 2000).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서, Solomon과 Rothblum(1984)은 평가불안, 의사결정의 어려움, 통제에 대한 저항, 실패에 대한 공포(김환, 1999),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등

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역시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혜연, 2009; 현지은, 2010). Van Eerde(2003)가 실시한 메타분석에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이 외부적인 요소인 만큼, 학업지연행동을 중재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의 매개변인에 관한 최근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김연실, 2000; 황임숙, 2008; 전효인, 2012)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외에, 개인 내적 특성 중 실패공포(김현정, 2003; 추상엽, 2008)가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Mih(2013)는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부모를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경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자녀의 학업동기가 감소하지 않도록 감독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독은 지연행동의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자녀를 향한 지나친 비판 또한 학업지연행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과도한 요구수준은 자녀의 완벽주의 성향을 높이게 되며, 이것이 좋은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 과제를 시작하는 것을 미루는 지연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추상엽, 임성문, 2008)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전체 효과의 68.8%이며, 부모 변인이 개인 변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녀의 성장 이후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Voicu(1992), Ferrari와 Olivette(1993/1994) 등은 강압적이고 비판적이며, 처벌적인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지연행동뿐만 아니라 완벽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의 경우 Ferrari와 Olivette(1993/1994), Pychyl, Coplan과 Reid(2002) 등 소수의 학자들만이 부

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이며, 국내에서도 김연실(2000)과 황임숙(2008) 등의 연구 외에는 드문 실정이다.

부모양육태도는 실패공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업 성취를 통해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자녀는 성취에 실패함으로써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패공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실패공포의 발달에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Argyle과 Robinson(1962)은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실패공포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수록 자녀의 실패공포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우수한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보일수록 자녀의 실패공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eevan & McGhee, 1972). 또한 Teevan(1983)은 수행에 실패하였을 경우 처벌을 가하고 성공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자녀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패공포는 지연행동 연구의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지연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Solomon & Rothblum, 1984; Ferrari et al, 1995). Schouwenburg, Lay, Pychyl과 Ferrari(2004)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실패공포, 완벽주의와 같은 동기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Solomon과 Rothblum(1984)은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을 설명하는 전체 변량 중 49.4%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지연행동을 자주 하는 학생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낮은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 결과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addler & Buley, 1999). 그리고 지연행동자들은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일의 시작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시작 자체를 하지 않게 된다(Horney, 1950; 정승진, 1999에서 재인용). 이처럼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Schouwenburg, 1992b; Ferrari et al, 1995에서 재인용)와, 지연행동에 대한 실패공포의 효과가 .18로 크지 않다는 연구(Van Eerde, 2003) 등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패공포와 지연행동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두 변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지연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적 풍토를 고려하였을 때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차원에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계수영 등, 2011; Steel, 2002; Van Eerde,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 실패공포를 가정하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1.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낮으며, 학업지연행동도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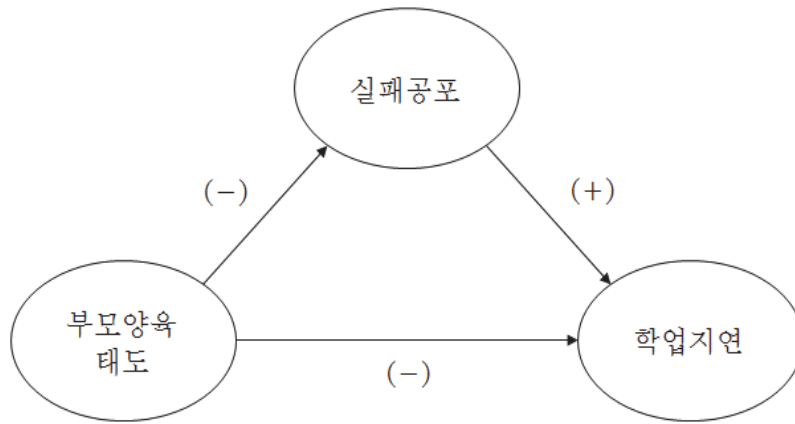
가설 1-2.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높으며, 학업지연행동도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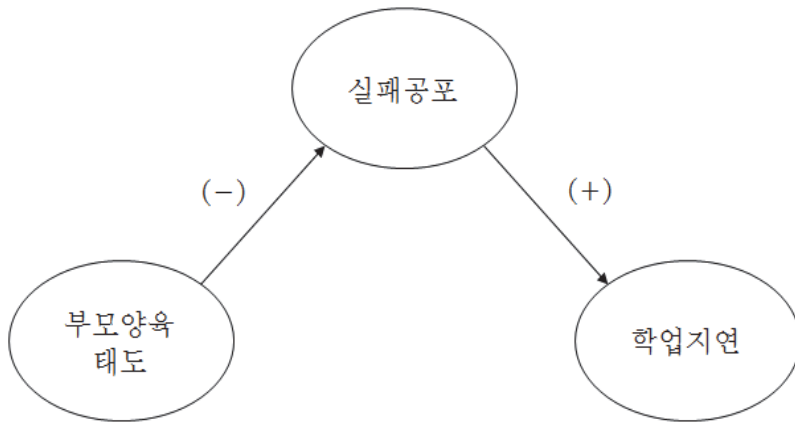
가설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은 실패공포에 의해 부분매개 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패공포의 매개경로에 따른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연구모형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 사이에 직접적인 경로를 가정하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의 모형이다. 이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과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있어 꾸물거리는 행동을 가져오게 한다는 Ferrari와 Olivette(1993/1994)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2]는 경쟁모형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은 실패공포에 의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다. 이는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실패공포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Teevan, 1983),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연행동을 나타낸다는 Rothblum(1990)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지연 행동

1) 학업지연 행동의 정의

지연 행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이며,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한다(박승호, 서은희, 2005). 지연 행동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지만,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역기능적인 미루기 행동(Ellis & Knanus, 1977), 미루는 행동으로 인해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불필요하게 수행을 미루는 행동(Solomon & Rothblum, 1984), 지속적인 미루기 현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게 나아갈 것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동을 미루는 것(Steel, 2007)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지연 행동이 학업 장면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를 ‘학업지연 행동’이라고 한다. 서은희(2006)는 학업지연 행동을 학업 장면에서 자기조절의 실패로 해야 할 과제나 시험 준비를 정해진 시간 안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여 자신의 목표를 손상시키는 자기 패배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윤정과 김성희(2008)는 학업과 관련하여 해야 하는 과제를 미루거나 시험 공부를 미루는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간 내에 과제의 수행을 시작하거나 완성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연 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 일을 계획

하고 그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반적 지연행동 (general procrastination)과, 학업과 관련하여 시험공부를 미루고 과제수행과 제출을 계속 미룸으로써 정서적인 불편함을 경험하는 학업적 지연행동 (academic procrastination)으로 나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 중 학업적 지연행동은 개인의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 지연행동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박재우, 1998; Saddler & Sacks, 1993; Solomon & Rothblum, 1984). 학업지연행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학업 성취를 저해시키며(남경득, 2013; 신명희 등, 2005; Balkis, Duru, & Bulus, 2013; Jackson, 2012; Klassen & Kuzucu, 2009; Tan et al, 2008), 그 결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게 하며 부정적인 상을 가지게 만든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그리고 학생들은 부정적인 상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적인 부적응을 겪게 되며(곽유미, 2010; 김광숙, 김정희, 2007; 유지원, 송윤희, 2012; Flett & Hewitt, 2013; Sharma & Kaur, 2011),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사로부터 능력이 부족하며 게으른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게 한다(Owens & Newbegin, 1997). 이와 같은 지연행동은 내적으로는 초조, 후회, 절망, 비합리성, 자기 비난을 나타내며, 외적으로는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고, 직장에서 승진과 같은 기회의 상실,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urka & Yuen, 1983).

이처럼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지연행동의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이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Steel, 2002). Tice와 Baumeister(1997)는 압박한 마감 기한에 일을 마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여 집중하게 되고 단기간에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되는 등 지연행동이 학

업수행을 향상시키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긍정적인 동기화를 위해 강한 수준의 자극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지연행동은 계획적인 동기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일부는 마감기한에 대한 압력 하에서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Ferrari et al, 1995; 김희정, 2010).

이제까지 지연행동에 관하여 해외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Burka & Yuen, 1983; 윤숙경, 1996; 김광숙, 김정희, 2007; 서은희, 2006). 그러나 학업지연행동으로 인한 문제는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Solomon & Rothblum, 1984; Steel, 2007). 강은주(2006)는 국내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중학생보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등학생은 자신의 미래 성취에 관한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생각과 실제 보이는 수행에서의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 본인이 느끼기에는 실제 수행보다 훨씬 더 잘 하여 좋은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과제나 시험의 결과물로 제시되는 성적을 살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2011)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는데, 약 84%의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실제 자신의 능력과 학업 성적 사이에 불일치를 느끼고 있으며, 불일치의 주된 원인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게으름과 집중력 저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중 약 40%는 학업지연행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학업지연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약 63%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극복하고 싶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연구한 Rosário 등(2009)의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잠재력보다 더 낮은 학업 성

취를 가져온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등학생 중 15~20%가 빈번한 학업지연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학업 수행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학습 부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고(Mandel & Marcus, 1988), 학교 상담실을 찾아온 학생들의 문제의 52%가 지연행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LaForge, 2005; Gallagher, Golin, & Kelleher, 1992). 통계청에서 실시한 청소년상담지원현황(2014)을 살펴본 결과, 학업과 진로 문제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대인관계 20.4%,로 나타나는 등 학업문제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고통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학업지연행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학년에 따라 학업지연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최윤정, 김성희, 2008; Rosário et al, 2009; Owens & Newbegin, 1997). 학교와 청소년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상담자들은 학생들의 지연행동에 대해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나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등학생의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완벽주의, 실패에 대한 공포, 자기효능감, 평가에 대한 불안, 부모의 심리적 통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은주, 2006; 곽유미, 2010; 임소연, 2013; 추상엽, 임성문, 2009; Capan, 2010; Steel, 2007; Van Eerde, 2003). 이를 개인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하면,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완벽주의(윤숙경, 1996; 박재우, 1998), 자기효능감, 스트레

스 대처방식(최지연, 2000), 실패공포(김환, 1999) 등이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서는 과제의 자아 위협도(박재우, 1998), 부모의 양육방식(김연실, 2000) 등이 있다. Burka와 Yuen(1983)은 지연행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두려움 때문에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두려움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통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분리 또는 애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연행동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이은정, 2002).

Solomon과 Rothblum(1984)은 지연행동의 원인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패에 대한 공포(fear of failure)와 과제 혐오(take aversiveness)가 지연행동의 대부분을 설명해준다고 보고하였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평가불안, 완벽주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며, 과제 혐오는 과제에 대한 열정의 부족과 혐오감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Rothblum(1990)은 다가오는 시험이나 과제의 제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연행동을 하게 되는데, 과제수행의 회피와 같은 지연행동에 의해 불안이 감소된다고 하였다(Bridges & Roig, 1997).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실패공포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학업지연행동을 중재하는 전략에 있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서은희, 2006; 최윤정, 김성희, 2008; 함경애 등, 2011) 학업지연행동에 있어 실패공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정신분석 연구자들은 지연행동의 상징적인 면들을 강조하면서(윤숙경, 1996), 지연행동을 지나치게 자녀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부모나, 자녀가 가진 수준에 비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부모에 대한 저항, 혹은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인 불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McCown, Petzel, & Rupert, 1987). 'Your inner child of the past'를 저술한 Missildine(2006)은 무조건적인 복종과 명령, 그리고 수행에 대해 확인하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지연행동을 나타내기 쉬운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항할 경우 처벌이 이어지기 때문에 억장을 부리며, 다른 생각을 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의 반항으로 반응하게 된다. 또한 MacIntyre(1964; 임성문, 2006에서 재인용)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 부모가 설정해 놓은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권위에 습관적으로 도전함으로써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로부터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과도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불안 수준을 높여 정해진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연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부모가 지나치게 성취중심적인 경우 자녀에게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연결시킨다면, 자녀가 성취에 있어서 실패를 한 경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해 자신의 능력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고 성공을 했을 때에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과거의 불안과 두려움, 무가치함과 같은 느낌을 다시 경험하게 함으로써 수행을 시

도하기보다는 미루게 된다(Missildine, 2006).

부모의 심리적 통제 또한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백승순, 2014; 이다운, 2012; 추명경, 2011; 현지은, 2010; 이혜연, 2009). 김연실(2000)과 황입숙(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은 부모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부모가 비판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여아들의 일반적인 지연성향이 높았으며, 학업지연으로 발생하게 되는 억압된 분노, 저항,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들은 어머니의 거부, 아버지의 돌봄과 관련이 있었다. Voicu(1992)는 가족관계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남아의 경우 아버지와 의 갈등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지나치게 의존할수록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성차를 비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Ferrari et al, 1995; 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되었으나, 성차를 보인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Kim & Rohner, 2002). Pychyl, Coplan과 Reid(2002)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지연행동과 관련을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자녀의 지연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남학생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지연행동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없었지만, 여학생들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민주적으로 지각할수록 지연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쉽게 만족하지 않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의 경우 실패를 감내하기 보다는 수행을 회피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그는 특히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둔 딸들이 더욱 회피적인 지연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Ferrari와 Olivette(1993/199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여자 청소년의 결정 지연과 회피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를 권위

주의적이라고 지각한 딸들이 더 높은 수준의 만성적 지연행동을 보였으며, 아버지를 민주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지연행동을 적게 보였다. 이에 비해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는 딸들의 지연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성향이 높은 딸들은 아버지를 더 권위주의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내면의 억압된 분노 수준 또한 높았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의 허용적인 태도는 자녀의 지연성향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김연실, 2000; Pychyl, Coplan, & Reid, 2002). 이처럼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성차가 연구마다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두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실패공포의 매개효과

1) 실패공포의 정의

최근 들어 학업지연행동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변인인 실패공포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독립적인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 관련 연구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다(McClelland, Atkinson, Clark, & Lowell, 1976; Elliot & McGregor, 1999; Conroy, 2001). 성취동기는 탁월하려는 욕구, 우수함과 성공을 향한 욕구로 정의되며, Atkinson과 Feather(1966)는 성취동기를 성공을 원하는 동기와 실패공포의 조합으로 보았다. 이들은 실패공포가 부정적인 자극을 피하려는 동기이며, 어떤 과제에 대해 성공을 원하는 동기보다 실패공포가 더 클 때 개인은 실패에 관련된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과제를 회피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llis와 Knaus(1977)의 연구에서도 과제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제를 회피함으로써 지연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후 Solomon과 Rothblum(1984)의 연구에서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변량이 전체 변량 중 49.4%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지연행동에 관한 책을 저술한 Burka와 Yuen(1983)이나 몇몇 임상가들(Beswick, Rothblum, & Mann, 1988)도 실패공포를 지연행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실패공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실패공포는 주로 스포츠(Anshel, 1991), 학업장면(Guyton et al, 1989), 그리고 일과 관련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연구 결과, 실패공포가 높은 아이들은 낮은 아이들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바라는 행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Singh, 1992), 학교 장면에서의 실패공포는 중간정도의 난이도를 가진 과제를 수행할 때, 참조

집단의 수행에 대해 알고 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었다(Monte & Fish, 1989). 실패공포는 식욕감퇴(Weeda-Mannak, Winny, & Drop, 1985), 아동기 불안, 우울, 침묵, 그리고 과민성(Singh, 1992)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처럼 실패공포는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원으로 밝혀졌으며(Gould, Horn, & Spremann, 2010),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Orlick, 1972). 실패공포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Bishop, Bauer와 Becker(1998)는 대학교 상담소를 찾는 대학생의 35%가 실패공포를 다루는데 있어 도움을 원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ung과 Hipple(1996; 이지연, 조혜숙, 2011에서 재인용)은 음대 학생의 35%가 실패공포가 그들의 학업 수행을 방해하는 걱정거리라고 보고했다. 또한 실패공포 수준이 높은 개인은 실패하였을 경우, 스스로를 전반적으로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며, 타인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Covington, 1992). 특히, 성취와 같은 능력이 평가되는 상황에서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불안을 경험하게 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실패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을 채찍질하는 등의 자기방어의 방법을 찾는다고 하였다(Elliot & Church, 1997). 한편, 실패공포에 대한 성차를 비교한 연구에서 남녀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Fried-Buchalter, 1997; Duley, Conroy, Morris, Wiley, & Janelle, 2005; 배대식, 2009; 김숙현, 2013)가 있는 반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실패공포 수준을 보인다는 연구(Morgan & Mausner, 1973; Levine & Crumrine, 1975; 김유진, 2009; 이원석, 2015)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은 실패공포를 보인다는 연구(Moore, 1974; Bremer & Wittig, 1980; Kearney, 1984)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이 실패공포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어떤 이유로 실패에 대한 공포를 형성하는지 그 기저를 깊게 이해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Elliot & McGregor, 1999).

실패공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 Conroy(2001)는 실패공포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하였고, Lazarus(1990)의 인지적-동기적-관계적 이론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척도인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PFAI)'를 개발하였다. 그는 실패공포를 수치심과 당황을 경험하는 것, 자신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Conroy, Willow, & Metzler, 2002),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실패공포의 관계

실패공포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모자녀의 관계가 실패공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Elliot과 Thrash(2004)는 아동에게 있어 실패에 대한 공포의 발달은 부모의 높은 기대, 부모의 비난과 같은 부모 요인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Teevan(1983)은 부모의 양육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대해 평가절하를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처벌을 가하고 성공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실패공포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실패공포 경향성이 자녀에게 내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Elliot & Thrash, 2004). 특히, Singh(1992)는 부정적인 모성 특성으로 성급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우 강한 실패공포와 연관이 된다고 밝혔다. Elliot과 McGregor(1999)는 실패공포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들이 실패를 한 후 어머니에게 그들의 실패 경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으며, 실패경험을 말하고 난 뒤 어머니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실패와 거절의 반복적인 조합은 ‘내가 실패하면, 부모님은 나를 거절하겠지.’라는 도식이 자리잡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Baldwin & Sinclair, 1996; Baldwin & Meunier, 1999).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유사하게 실패 경험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이 자녀의 실패공포 형성에 연관이 된다는 Elliot과 Reis(2003)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패공포의 관련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패공포 수준이 높은 개인은 실패 경험과는 달리 성공 경험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rney, Burdick, & Teevan, 1969). 구체적으로, 높은 실패공포 성향을 가진 개인은 성공 경험에 대해 ‘성공(succeed)’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실패하지 않은(nonfailure)’으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부모가 우수한 학업성취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경우 자녀는 학습에 회피적이고 체념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Gonzalez, Greenwood, & WenHsu, 2001).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배대식(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패공포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자녀의 성취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모에게서 양육되거나, 자녀가 학업에 실패한 것을 부족하다고 여겨 수용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과 비현실적인 기대 수준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육방식으로 자란 자녀는 성취에 실패하였을 경우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거나 수행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학업 수행을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패를 줄이고 성취를 향해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회피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원인을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귀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상엽(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실패공포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회피목표지향성,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실패공포의 관계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 아동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실패공포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는 연구들(Conroy, 2001; Elliot & Thrash, 2004; Elliot & McGregor, 2001)이 보고되고 있으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실패공포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많지 않아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은데, 이는 학업 장면이 수행과 평가와 관련된 많은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이지연, 조혜숙, 2011). Kachgal, Hansen과 Nutter(2001)는 20%가 넘는 지연행동자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되는 실패공포를 지연행동의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지연행동과 실패공포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연성향과 실패공포는 정적으로 서로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uwenburg, 1992a).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연행동과 실패공포에 대해 연구한 Haghbin, McCaffrey와 Pychyl(2012)은 지연행동 때문에 성취에 실패하게 되고, 실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시 지연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Rubin과 Rubin(1998)은 지연행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 과대평가되는 것에 대한 공포와 같은 비합리적인 신념의 원인에는 개인의 내부에 자리 잡은 깊은 실패공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실

패공포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어떠한 비판, 거부 혹은 판단에 대해 자신을 완벽하지 않으며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추상엽(2008)은 실패공포가 회피목표를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인지통제가 강해지며 결국 학업지연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경로를 설명하였다. 최근에 주장된 3A(Appraisal-Anxiety-Avoidance), 즉 평가-불안-회피 이론을 설명한 Rothblum(1990)은 실패공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과제의 마감기일이나 시험날짜가 임박하였을 때 평가와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을 걱정하게 된다.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둘러 과제를 수행하거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행동을 통해 회피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강화되어 회피 행동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연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과제를 완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과제의 시작을 미룬다고 하였다(Ellis & Knaus, 1977). Burka와 Yuen(1983)은 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요인 분석한 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두려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설명량을 가진다고 밝혔다. 호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Beswick, Rothblum과 Mann(1988)의 결과를 보면,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패공포가 지연행동 전체변량의 26%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chouwenburg, 1992a). 김환(1999)의 연구에서도 지연행동의 원인으로 실패공포를 다루었으며, 연구 결과 실패공포는 지연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실패공포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업지연행동 점수가 높아진다는 연구(이지연, 조혜숙, 2011)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학업 장면이 수행과 평가와 관련된 상황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상황보다도 학업 장면에서는 과제의 수행과 정기적인 시험으로 인해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평가는 개인의 능력과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 시험공부를 미루거나 과제 제출 미루기와 같은 학업지연행동은 다가오는 시험과 과제 제출에 대한 실패공포를 나타내는 징조일 수 있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이와 같이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지연행동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지연행동에 대한 실패공포의 효과크기는 .18로 크지 않거나(Van Eerde, 2003), 두 변인 사이에 매우 작은 관련성을 보인다(김현정, 2003)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Haghbin et al(2012)은 이처럼 두 변인 사이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들을 통해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간접적이면서도 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해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실패공포를 고려하였을 때, 인지, 정서, 동기적 요인과 같은 구성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1, 2학년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550부를 배포하였으며, 총 520부를 수거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중 빠뜨린 문항이 있거나 한 척도 이상 답을 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료 39부를 제외한, 총 481명의 자료가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의 성별, 학년, 가족형태, 부모 학력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중 남자는 184명(38.3%), 여자는 297명(61.7%)이었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227명(47.2%), 2학년은 254명(52.8%)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모와 모두 동거는 456명(94.8%), 아버지와 동거는 2명(0.4%), 어머니와 동거는 20명(4.2%)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졸 이하는 2명(0.4%), 고졸은 12명(2.5%), 대졸은 296명(61.5%), 대학원 이상은 171명(35.6%)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는 없었으며, 고졸은 25명(5.2%), 대졸은 349명(72.6%), 대학원 이상은 107명(22.2%)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81)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84	38.3
	여	297	61.7
학년	1학년	227	47.2
	2학년	254	52.8
가족형태	부모와 모두 동거	456	94.8
	아버지와 동거	2	0.4
	어머니와 동거	20	4.2
	기타	3	0.6
부 학력	중졸 이하	2	0.4
	고졸	12	2.5
	대졸	296	61.5
	대학원 이상	171	35.6
모 학력	중졸 이하	0	0.0
	고졸	25	5.2
	대졸	349	72.6
	대학원 이상	107	22.2
합계		481	100

2. 측정도구

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제작한 것을, 임선화(1987)가 반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4개의 하위영역에 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재편성한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검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켰다.

4개 영역의 양육태도는 1번부터 애정차원, 자율차원, 성취차원, 합리차원에 관한 순으로 반복하여 문항 배열이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마다 부·모를 구분하였으며, 긍정적인 문항의 경우에 ‘전혀 아니다’는 1점, ‘거의 아니다’는 2점, ‘가끔 그렇다’는 3점, ‘거의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의 형태이다. 18개의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부모를 더욱더 애정, 자율, 성취, 합리와 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와 같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정선아(2012)의 연구에서 하위유형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애정이 .76, 자율이 .63, 성취는 .67, 합리차원이 .77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전체 신뢰도,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애정차원	10	1,4*,13,17*,21,25,29,33*,34,37*	.79
자율차원	10	2*,6,10,14,18*,22,26*,30*,38,40*	.71
성취차원	10	3,7*,11,15,19,23,27*,31*,35,39	.67
합리차원	10	5*,8,9,12*,16*,20*,24*,28,32,36*	.82
전체	40	1 ~ 40	.87

*표시는 역문항

2) 학업지연 행동

본 연구에서 학업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Aitken(1982)의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를 박재우(1998)가 변안, 수정한 것을 고등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척도이며 만성적인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상황에서는 경험하기 어렵거나 혹은 학업 지연행동과 무관한 문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과 관련성이 적은 네 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19개의 문항 중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삭제된 문항의 예로는 '일 시작하기를 미루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이 있다면 나는 참석할 것이다.', '나는 학교 일과 관련된 면담 약속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한다.', '나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입고 싶은 옷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루 전에 확인한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는 1점, ‘거의 아니다’는 2점, ‘가끔 그렇다’는 3점, ‘거의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의 형태이다. 전체 문항 중 7개의 문항(3, 5, 9, 10, 12, 13, 14번)은 역채점 문항이다. 척도 문항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공부나 숙제를 시작하지 않고 미룬다.’, ‘나는 종종 숙제를 끝내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행동의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선미와 박주희(2014)의 연구에서 15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학업지연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3) 실패공포

본 연구에서 실패공포를 측정하기 위해 Conroy 등(2002)이 실패의 혐오적 결과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PFAI-R(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을 임성문(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일차요인과 이 일차요인들이 실패공포라는 단일 이차(상위)요인으로 수렴되는 위계적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 5개의 일차요인은 중요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흥미가 줄어들 것이다.’),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내가 실패했을 때, 나에게 충분한 재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내가 실패하였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내가 실패했을 때, 내 미래의 계획을 화나게 만든다.’),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내가 실패했을 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는 1점, ‘거의 아니다’는 2점, ‘가끔 그렇다’는 3점, ‘거의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의 형태이다. 전체 문항 중 1개의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Conroy 등(2002)의 연구에서 하위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4~.81로 나타났으며, 임지현(2015)의 연구에서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3,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5,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75,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는 .83,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85로 나타났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실패공포 척도의 전체 신뢰도, 하위요인별 신뢰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실패공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5	1, 2, 3, 4, 5,	.76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5	6, 7, 8, 9, 10	.82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5	11, 12*, 13, 14, 15	.63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5	16, 17, 18, 19, 20	.80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5	21, 22, 23, 24, 25	.84
전체	25	1 ~ 25	.94

*표시는 역문항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의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과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수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이 때 학업지연행동이 단일변인이기 때문에 3개의 문항꾸러미(Item-Parcel)로 나누어 측정변수를 만들었다. 문항꾸러미를 제작한 이유는 최대우도법 절차의 가정은 자료의 정규분포인데,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Bandalos & Finney, 2001). 또한 문항꾸러미를 사용함으로써 모수 추정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 분석을 할 경우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줄어들 뿐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가 향상된다(Bandalos & Finney, 2001).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Anderson & Gerbing(1988)의 2단계 추정방식에 따라서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한 뒤, 다음 단계에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X^2 검증이 사용되나, X^2 검증의 경우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연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동일한 모형이라도 표본크기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고 채택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어 모형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된다. 적합도 지수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도 지수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자료에 잘 부합되면서 간명한 모형을 선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CFI(Comparative of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CFI, TLI는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배병렬, 2011), RMSEA의 경우에는 .05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mediocre fit),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unacceptable fit)로 간주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절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학업지연행동 그리고 실패공포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학업지연행동, 실패공포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은 유의한 부적상관($r=-.41, p<.01$)을 나타내었고, 실패공포($r=-.40, p<.01$) 또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 수행에 있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노력한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등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지연행동과 실패공포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성취차원($r=-.38, p<.01$)은 학업지연행동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학업수행에 있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며, 자녀의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할수록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셋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합리차원($r=-.38, p<.01$)은 실패공포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성취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녀의 교육에 있어 감정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넷째,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은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r=.29, p<.01$)을 나타내어, 실패공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학업지연행동은 실패공포의 하위요인 중 타인의 관심

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r=.33, p<.01$)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업 성취에 있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부모나 교사와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지연행동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4> 주요 변인의 하위 변인들 간 상관관계($n=48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각된 부모	1												
1. 전체		1											
양육태도		.87**	1										
2. 애정차원		.76**	.49**	1									
3. 자율차원		.84**	.74**	.52**	1								
4. 성취차원		.87**	.70**	.56**	.61**	1							
5. 합리차원		-.41**	-.33**	-.32**	-.38**	-.34**	1						
학업지연행동		-.40**	-.35**	-.33**	-.28**	-.38**	.29**	1					
7. 전체		-.35**	-.29**	-.29**	-.24**	-.35**	.33**	.80**	1				
실패공포		-.36**	-.31**	-.30**	-.24**	-.33**	.25**	.91**	.75**	1			
9. 평가절하		-.38**	-.33**	-.30**	-.27**	-.35**	.25**	.89**	.57**	.72**	1		
10.불확실한미래		-.32**	-.29**	-.27**	-.21**	-.31**	.23**	.90**	.60**	.76**	.81**	1	
11. 타인속상		-.35**	-.33**	-.29**	-.24**	-.31**	.19**	.84**	.55**	.68**	.76**	.70**	1
12. 수치당황													

* $p < .05$, ** $p < .01$

주.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패공포, 학업지연행동,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들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n=481$)

연구 변인	남($n=184$)		여($n=297$)		<i>t</i>
	<i>M</i>	<i>SD</i>	<i>M</i>	<i>SD</i>	
부모양육태도 전체	3.66	.424	3.73	.468	-1.671
하위변인					
예정차원	3.83	.499	3.95	.552	-2.306**
자율차원	3.44	.479	3.50	.543	-1.175
성취차원	3.74	.469	3.74	.484	-.049
합리차원	3.63	.573	3.74	.652	-1.919
실패공포 전체	2.55	.643	2.59	.709	-.540
하위변인					
타인관심	2.63	.736	2.81	.795	-2.608**
평가절하	2.50	.734	2.56	.873	-.727
불확실 미래	2.49	.805	2.43	.827	.788
타인속상	2.59	.844	2.61	.902	-.264
수치당황	2.56	.616	2.52	.654	.555
학업지연행동 전체	2.67	.670	2.66	.630	.097

** $p<.01$

주.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표 5>에서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인 애정차원은 남녀 성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t=-2.306, p<.01$), 남학생($M=3.83, SD=.499$)은 여학생($M=3.95, SD=.552$)보다 부모양육태도의 애정차원을 더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공포의 하위변인인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남녀 성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t=-2.608, p<.01$), 여학생($M=2.81, SD=.795$)은 남학생($M=2.63, SD=.736$)보다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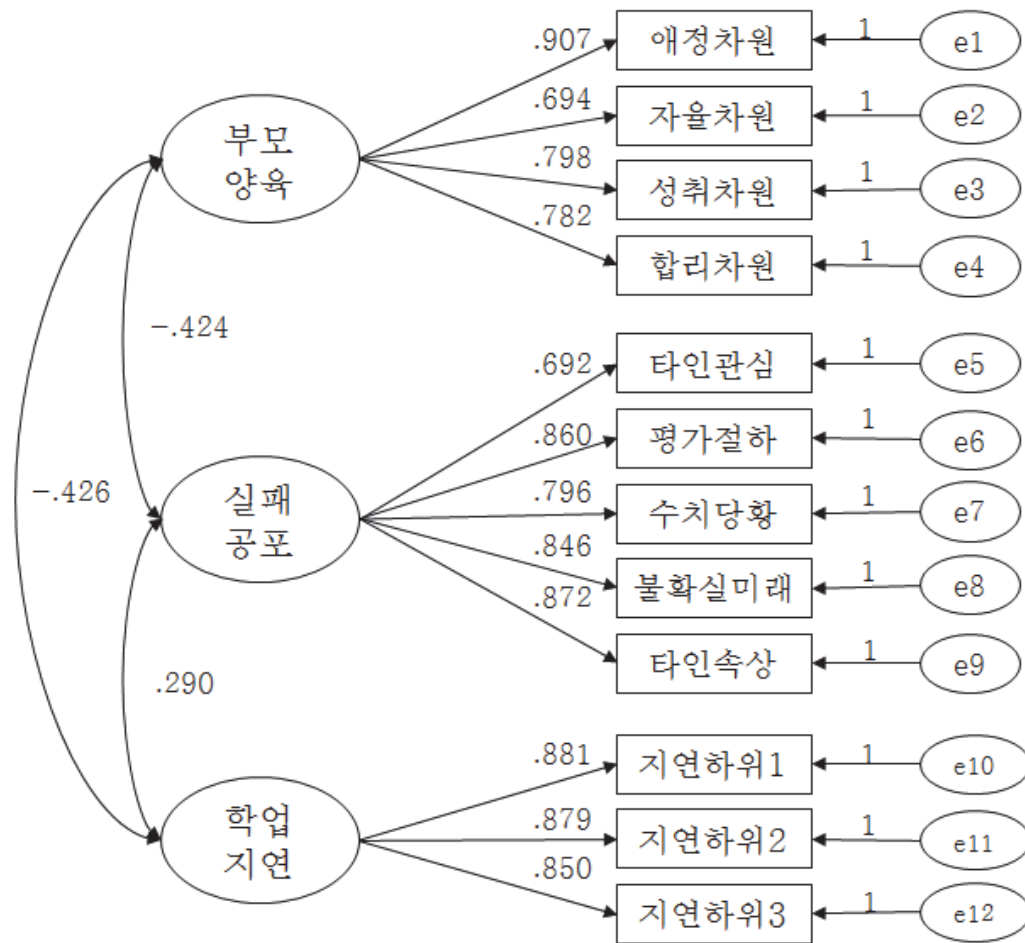
3. 모형 검증

1) 측정모형 검증

Anderson & Gerbing(1988)의 2단계 추정방식에 따라서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인 구조모형의 모형추정 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한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chi^2=119.642(df=47, p<.001)$, CFI=.981, TLI=.974, RMSEA=.057로 χ^2 값이 유의도 수준 .00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값은 표본 크기의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을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p=.000$)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림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6>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RMSEA
119.642	47	.981	.974	.057



[그림 3] 측정모형

주. 타인의 관심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자신이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한 공포,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포, 불확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공포.

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이 본 연구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X^2=119.642(df=47, p<.001)$ 로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X^2 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영가설 기각이 더 쉬어진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 평가에 있어서 X^2 의 값의 한계를 보완한 모델 적합도 지수 CFI, TLI, RMSEA를 함께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 ~ .08은 괜찮은 적합도, .08 ~ .10이면 보통 적합도, 그리고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X^2 , CFI, TLI, RMSEA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적합도 지수는 CFI=.981, TLI=.974, RMSEA=.057로 나타나 구조모형은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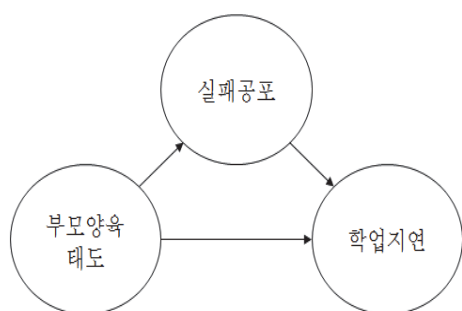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X^2	df	CFI	TLI	RMSEA
119.642	47	.981	.974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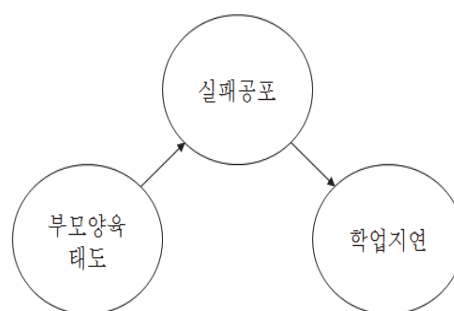
4. 모형 비교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최적의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을 선별하고자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부분매개)



[그림 2] 경쟁모형(완전매개)

<표 8>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X^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	119.642	47	.98	.97	.06
경쟁모형 (완전매개)	168.224	48	.96	.97	.07

두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기 때문에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X^2 의 차이 값을 통해 비교하였다. 하지만 표본 크기에 민감한 X^2 검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다른 적합도 지

수들인 CFI, TLI, RMSEA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의 X^2 차이는 48.582로 임계치인 3.84($df=1$)를 넘는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모형의 설명력은 감소하였지만 ($\Delta X^2 = 48.582$), 간명성은 증가하였다($\Delta df = 1$). 또한,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 역시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들과 비교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이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을 선택하였다. 이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통해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지금까지의 모형비교에 의한 검증에 의해 채택된 최종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서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표 9>와 같이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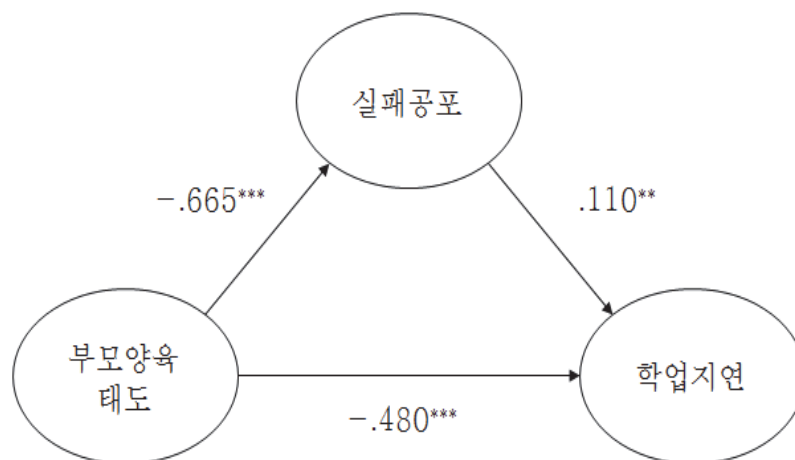
<표 9> 부분매개모형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경	로	<i>B</i>	β	<i>SE</i>	<i>t</i>
부모양육태도	→ 학업지연	-.480	-.370	.070	-6.898***
부모양육태도	→ 실패공포	-.665	-.424	.078	-8.508***
실패공포	→ 학업지연	.110	.133	.043	2.54**

** $p < .01$, *** $p < .001$

<표 9>에서와 같이, 최종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에서 변인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학업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80, p<.00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실패공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65, p<.001$).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0, p<.01$). 이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지연행동과 실패공포는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본 변인들 간의 매개경로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실패공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긍정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는 실패공포를 감소시키게 되며, 낮아진 실패공포는 학업지연행동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로계수를 [그림 4]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4]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주1.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주2. ** $p<.01$, *** $p<.001$

5. 매개효과

위와 같은 분석을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간에 실패공포가 부분 매개하는 매개경로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매개경로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으로 2000개의 자료표본을 무선 표집으로 생성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경로	매개효과	95% CI-Bootstrap Percentile	
		Lower Bounds	Upper Bounds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 학업지연	-.073	-.139	-.012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에서 학업지연행동으로 가는 매개경로에서 매개효과(간접효과)는 -.07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5%의 신뢰구간(95% CI-Bootstrap Percentile)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분매개모형은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검증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효과는 실패공포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거쳐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매개모형 내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자세하게 나누어서 <표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11> 변인들 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 표

독립변인	경로		간접 효과	직접 효과	총 효과
	매개변인	종속변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 실패공포	→ 학업지연	-0.07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	학업지연		-0.480	-0.553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직접효과는 -0.480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지연행동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간접효과는 -0.073인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0.553(= (-0.480) + (-0.073))$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0.480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지연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과제의 시작을 꾸물거리는 학업지연행동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0.073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학업지연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실패공포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학업으로 인한 압박감이 가장 큰 집단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강압적이고 통제적이며 처벌을 가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과제를 시작하는데 꾸물거리게 만들며, 기한 내에 과제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학업지연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Ferrari & Olivette, 1993/1994; Pychyl, Coplan, & Reid, 2002; 김연실, 2000; 황임숙, 2008)와 일치한다.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실패공포가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자녀가 학업성취에 실수를 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비난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수행의 과정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보일 경우 실패에 대한 공포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패에 대한 공포의 발달이 부모의 높은 기대와 부모의 비난과 같은 부모요인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Conroy, 2003; Elliot & Thrash, 2004; Sideridis & Kafetsios, 2008; Sagar & Lavalley, 2010)와, 부모가 세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에 자녀가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모 아래서 자란 자녀는 실패공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는 배대식(200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이고 일관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와 실패공포 수준을 낮추며,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는 Sideridis와 Kafetsios(2008)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은 낮은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실패공포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연행동의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Solomon & Rothblum, 1984; Schouwenburg, 1992a; Ferrari et al, 1995; Saddler & Buley, 1999; Kachgal, Hansen, & Nutter, 2001)와 일치한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지연행동은 실패공포에 의해 부분매개가 되는 연구모형이 채택되었다. 이는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낮아진 실패공포가 다시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업 장면에서의 불안이 증가한다는 정중희, 정현희, 이귀숙(2008)의 연구와, 부모로부터 지지와 격려보다는 비난을 받을수록 지연행동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Ferrari, Harriott과 Zimmerman(1998)의 연구 결과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작은 실수를 완전한 실패라고 여기는 실패공포(Kuczynski, Kochanska, Radke-Yarrow, & Girnius-Brown, 1987; Stoeber & Rambow, 2007; Stoeber & Becker, 2008; Sagar & Stoeber, 2009)에 영향을 주어 지연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Watson, 2001; Haghbin, McCaffrey, & Pychyl, 2012; 이은정, 2002; 임지현, 2015)와 일치한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실패공포를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지연행동에 대한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나 완벽주의와 같은 개인 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실패공포 외에도, 부모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변인을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학업지연행동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매개로 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상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연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내담자는 실패하는 것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그리고 능력에 대한 평가절하와 같이 학업 성취 상황에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업지연행동에 있어 실패공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실패공포의 하위요인 중 어떤 요인이 내담자의 지연행동을 유발시키는지 자세히 탐색하여 실패공포를 감소시키는 상담전략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합리적인 신념이 실패공포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통해 지연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해야한다(have to)를 선택한다(choose to)로, 완벽해야만 한다(must be perfect)를 완벽한 사람이 되어보기(can be perfectly human)와 같은 '생각 대체하기(Replacing Thoughts) 프로그램'(Rubin &

Rubin, 1998)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과 당위적 신념들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호소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상담 장면에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이는 경우 실패공포 수준을 낮추고, 과제를 미루는 것과 같은 회피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와, 부모 외에도 교사나 친구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청소년의 실패공포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Pianta & Nimetz, 1991; Finn & Rock, 1997; Linnenbrink, 2005)를 통해, 상담 장면에서 주의 깊은 경청, 공감적인 지지와 같은 상담기법을 통해 청소년의 실패공포 수준을 감소시키는 상담전략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실패공포가 학업 장면뿐만 아니라 직장,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성취동기의 저하와 같은 개인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공포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장면에서 청소년의 실패공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실패공포의 발달에 있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부모의 지지적인 격려, 존중과 같은 공감적인 양육태도가 실패공포를 낮추고 자녀의 수행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연구를 통해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에서 개입전략과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애정적이면서도 친근한 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무력감을 감소시킨다는 Amato와 Rivera(1999)의 연구와, 자녀의 성취에 대해 격려를 하고, 성취에 대해 부모자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개방형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의 실패내성을 증가시켜 실패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수행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연구(Spera, 2005; 조한익, 조윤희, 2011)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Gottman(2007)의 감정코칭에 기반하여 자녀의 실패에 대해 꾸짖기보다는 자녀의 감정을 먼저 보살펴주는 방법과, 나 전달법(I-Message)을 통해 부모가 현재 느끼는 감정과 행동의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으로 함으로써, 자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자녀가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같이 부모 상담과 부모교육을 실행할 때 활동 목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학업지원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는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통해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방법은 자기보고 형식이었다. 특히, 실패공포와 같은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 묻는 문항은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경우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항의 수가 많아 청소년의 집중력을 고려하였을 때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저하되어 성실하지 않게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중복되고 불필요한 문항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거나, 자기보고 형식 이외에도 행동관찰, 면접법 등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인지, 정서, 행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는 점과, 실패공포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두 변인 사이의 낮은 상관관계를 통해 추후 연구에서 두 변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이나 조절하는 변인이 있는지 탐색하여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

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함께 측정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부와 모를 따로 나누어 각각의 양육태도에 따른 실패공포와 지연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은비 (2013). 성격 요인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성실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은주 (2006). 청소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1(2), 95-111.
- 곽유미 (2010).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 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33-947.
- 김숙현 (2013). 실패공포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실 (2000). 부모권위에 따른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진 (2009).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환 (1999). 학업적 꾸물거림에서 실패공포가 과제 제출 행동 지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 (2010). 능동-수동 지연행동에 관련되는 심리적 특성 및 정서적 고

- 통.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경득 (2013). 자기조절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지연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승호, 서은희 (2005). 여자 대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의 실태 및 원인 분석. 교육학연구, 43(2), 115-134.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대식 (200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 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462-463.
- 배병렬 (2011). Amos 1.0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승순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지연행동의 관계: 심리적 반발심,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은희 (2006).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명희, 박승호, 서은희 (2005). 여자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시간관리 및 지연행동 연구. 교육학연구, 43(3), 211-230.
- 유지원, 송윤희 (2012).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완벽주의, 우울, 시험불안, 자기손상전략이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4), 209-229.
- 윤숙경 (1996). 완벽성향과 자기개념에 따른 대학생의 지연 특성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다운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학업적 꾸물거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석 (2015). 중·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학업소진 관계에서

-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정 (2002). 대학생의 학업적 지연행동과 완벽주의 및 통제소재와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 조혜숙 (2011). 초등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실패공포의 매개효과검증. 청소년시설환경, 9(4), 35-48.
- 이혜연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부모의 심리통제가 청소년의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성문 (2006). 각성형과 회피형의 만성적 지연행동의 측정: Ferrari가 제안한 방법은 타당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91-102.
- 임소연 (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지현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 실패공포,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학업 지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선미, 박주희 (201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가 학업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8), 589-612.
- 전효인 (2012). 부모양육태도, 의지통제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정서조절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선아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승진 (1999).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종희, 정현희, 이귀숙 (2008). 부모의 성취압력이 중학생의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 377-393.
- 조한익, 조윤희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이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 성

- 취목표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18(9), 211-236.
- 최윤정, 김성희 (2008). 초등학교 고학년용 학업적 꾸물거림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9(1), 199-219.
- 최지연 (2000).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명경 (2011). 초등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관계에서 주의조절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추상엽 (2008). 실패공포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회피목표지향성, 인지통제의 매개효과와 부모의 성취압력,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추상엽, 임성문 (2008).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 성취 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지원행동,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7), 347-368.
- 추상엽, 임성문 (2009). 연구논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 간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의 매개효과와 인지전략, 메타-인지력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6(1), 467-490.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상담지원현황. 통계청 온라인 간행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 현지은 (2010). 남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

- 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은순 (2011).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임숙 (2008).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학업적 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를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Gottman, J., 남은영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치.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Knaus, W. (2004). 미룸의 심리학 [*The Procrastination workbook :your personalized program for breaking*]. (조은경역). 서울: 고수. (원전은 2002에 출판).
- Missildine W. H. (2006). 몸에 벤 어린시절 [*Your Inner Child of the Past*]. (이석규, 이종범역). 가톨릭출판사. (원전은 1963에 출판).
- Argyle, M., & Robinson, P. (1962). Two Origins of Achievement Motiv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2), 107-120.
-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75-38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shel, M. H. (1991). Causes for drug abuse in sport: A survey of intercollegiate athletes. *Journal of Sport Behavior*, 14(4), 283-307.
- Atkinson, J. W., & Feather, N. T. (Eds.). (1966). *A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Vol. 66). New York: Wiley.

- Baldwin, M. W., & Meunier, J. (1999). The cued activation of attachment relational schemas. *Social Cognition, 17*(2), 209-227.
- Baldwin, M. W., & Sinclair, L. (1996). Self-esteem and "if... then" contingencies of interpersonal accep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130-1141.
- Balkis, M., Duru, E., & Bulus, M. (2013).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rational/irrational beliefs, time preferences to study for exams, and academic achievement: a structural mode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3), 825-839.
- Bandalos, D. L., & Finney, S. J. (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eswick, G., Rothblum, E. D., & Mann, L. (1988). Psychological antecedents of student procrastin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23*(2), 207-217.
- Birney, R. C., Burdick, H., & Teevan, R. C. (1969). *Fear of failure*. Van Nostrand-Reinhold.
- Bishop, J. B., Bauer, K. W., & Becker, E. T. (1998). A survey of counseling need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2), 205-210.
- Bremer, T. H., & Wittig, M. A. (1980). Fear of success: A personality trait or a response to occupational deviance and role overload?. *Sex Roles, 6*(1), 27-46.
- Bridges, K. R., & Roig, M. (1997).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 irrational thinking: A re-examination with context controll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6), 941-944.
-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Why you do it,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Da Capo Press.
- Capan, B. E. (2010).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665-1671.
- Conroy, D. E. (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 *Anxiety, Stress and Coping*, 14(4), 431-452.
- Conroy, D. E. (2003). Representational models associated with fear of failur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71(5), 757-784.
- Conroy, D. E., Willow, J. P., & Metzler, J. N. (2002). Multidimensional fear of failure measurement: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2), 76-90.
- Covington, M. V. (1992). *Making the grade: A self-worth perspective on motivation and school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ley, A. R., Conroy, D. E., Morris, K., Wiley, J., & Janelle, C. M. (2005). Fear of failure biases affective and attentional responses to lexical and pictorial stimuli. *Motivation and Emotion*, 29(1), 1-17.
- Elliot, A. J.,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218-232.
- Elliot, A. J., & McGregor, H. A. (1999). Test anxiety and the hierarchical

-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4), 628-644.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 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501-519.
- Elliot, A. J., & Thrash, T. M. (200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8), 957-971.
- Elliot, A. J., & Reis, H. T. (2003). Attachment and exploration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17-331.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How to think and act rationally in spite of life's inevitable hassles*. New York: Institute for Rational Living.
- Fee, R. L., & Tangney, J. P. (2000). Procrastination: A means of avoiding shame or guilt?.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5, 167-184.
- Ferrari, J. R., Díaz-Morales, J. F., O'Callaghan, J., Díaz, K., & Argumedo, D. (2007). Frequent behavioral delay tendencies by adults international prevalence rates of chron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4), 458-464.
- Ferrari, J. R., Harriott, J. S., & Zimmerman, M. (1998). The social support networks of procrastinators: Friends or family in times of trou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2), 321-331.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Ferrari, J. R., & Landreth, N. (2014). Guess I Am a Procrastinator: Self and Other Perceptions among Rural US Citizens.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6*(1), 1-8.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3). Perceptions of parental control and the development of indecision among late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8*(112), 963-970.
- Ferrari, J. R., & Olivette, M. J. (1994). Parental authority and development of female dysfunctional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1), 87-100.
- Finn, J. D., & Rock, D. A. (1997). Academic success among students at risk for school fail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2), 221-234.
- Flett, G. L., & Hewitt, P. L. (2013). Disguised distr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flying under the radar": Why psychological problems are underestimated and how schools must respond. *Canadi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8*(1), 12-27.
- Fried-Buchalter, S. (1997). Fear of success, fear of failure, and the imposter phenomenon among male and female marketing managers. *Sex Roles, 37*(11), 847-859.
- Gallagher, R. P., Golin, A., & Kelleher, K. (1992). The personal, career, and learning skills need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4), 301-309.
- Gonzalez, A., Greenwood, G., & WenHsu, J. (2001). Undergraduate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 parenting styles. *College Student Journal*. 35(2), 182-192.
- Gould, D., Horn, T. S., & Spreemann, J. (2010). Sources of Stress in Junior Elite Wrestler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5(2), 159-171.
- Guyton, R., Corbin, S., Zimmer, C., O'Donnell, M., Chervin, D. D., Sloane, B. C., & Chamberlain, M. D. (1989). College students and national health objectives for the year 2000: A summary report.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38(1), 9-14.
- Haghbin, M., McCaffrey, A., & Pychyl, T. A. (2012).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 between fear of failure and procrastination.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30(4), 249-263.
- Haycock, L. A. (1993). *The cognitive mediation of procrastination: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rastination and self-efficacy beliefs*.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Information & Learning).
- Jackson, D. M. H. (2012). *Role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Self-efficacy Beliefs, and Prior Academic Skills on Course Outcomes for College Students in Development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Kachgal, M. M., Hansen, L. S., & Nutter, K. J. (2001). Academic procrastination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Education*, 25(1), 14-24.
- Kearney, M. (1984). A comparison of motivation to avoid success in males and fem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4), 1005-1007.
- Kim, K., & Rohner, R. P. (2002). Parental warmth, control, and

- involvement in schooling predicting academic achievement among Kor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2), 127-140.
- Klassen, R. M., & Kuzucu, E. (2009).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Turkey. *Educational psychology*, 29(1), 69-81.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 Girn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6), 799-806.
- LaForge, M. (2005). Applying explanatory style to Academic Procrastination. *Journal of academy of business education*, 6, 1-7.
- Lazarus, R. S. (Ed.) (1990). *Emotion & adaptation*. (pp.87-213).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e, A., & Crumrine, J. (1975). Women and the fear of success: A problem in re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4), 964-974.
- Linnenbrink, E. A. (2005). The Dilemma of Performance-Approach Goals: The Use of Multiple Goal Contexts to Promote Students' Motivation an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2), 197-213.
- McClelland, D. C., Atkinson, J. W., Clark, R. A., & Lowell, E. L. (1976). *The achievement motive*. New York: Irvington.
- McCown, W., Petzel, T., & Rupert, P. (1987). An experimental study of some hypothesized behavior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781-786.
- Mandel, H. P., & Marcus, S. I. (1988). *The psychology of*

underachievement: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 (Vol. 127). John Wiley & Sons.

- Mih, V. (2013). Role of Parental Support for Learning, Autonomous/Control Motivation, and Forms of Self-Regulation on Academic Attainment in High School Students: A Path Analysis. *Cognitie, Creier, Comportament*, 17(1), 35-59.
- Milgram, N. N., & Tenne, R. (2000). Personality correlates of decisional and task avoidant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2), 141-156.
- Miller, L. K., Weaver, F. H., & Semb, G. (1974). A procedure for maintaining student progress in a personalized university course.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7(1), 87-91.
- Monte, C. F., & Fish, J. M. (1989). The fear of failure personality and academic cheating. *Advances in test anxiety research*, 6, 87-103.
- Moore, K. A. (1974). *Fear of Success: The Distribution, Correlates, Reliability and Consequences for Fertility of Fear of Success Among Respondents in a Metropolitan Survey Population*.
- Morgan, S. W., & Mausner, B. (1973). Behavioral and fantasied indicators of avoidance of success in men and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41(3), 457-470.
- O'Brien, W. K. (2002). *Applying the transtheoretical model to academic procrasti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 Orlick, T. (1972). *A socio-psychological analysis of early sports particip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 Owens, A. M., & Newbegin, I. (1997). Procrastination in high school achievement: A causal structural model.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2*(4), 869-887.
- Park, S. W., & Sperling, R. A. (2012). Academic procrastinators and their self-regulation. *Psychology, 3*(1), 12-23.
- Pianta, R. C., & Nimetz, S. L. (1991).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Associations with classroom and hom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3), 379-393.
- Pychyl T. A., Coplan R. J., & Reid P. A. M. (2002). Parenting and procrast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ons between procrastination, parenting style and self-worth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2), 271-285.
- Rosário, P., Costa, M., Núñez, J. C., González-Pienda, J., Solano, P., & Valle, A. (2009). Academic procrastination: Associations with personal, school, and family variable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2*(1), 118-127.
- Rothblum, E. D. (1990). Fear of failure: The psychodynamic, need achievement, fear of success, and procrastination models. In H. Leitenberg.(Ed.),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497-537). New York Plenum.
- Rothblum, E. D., Solomon, L. J., & Murakami, J. (1986).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procrast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4), 389-394.
- Rubin, T. I., & Rubin, E. (1998). *Compassion and self hate: An*

alternative to despair. Simon and Schuster.

- Saddler, C. D., & Buley, J. (1999). Predi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84*(2), 686-688.
- Saddler, C. D., & Sacks, L. A. (1993).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3*(3), 863-871.
- Sagar, S. S., & Lavalley, D. (2010). The developmental origins of fear of failure in adolescent athletes: Examining parental practic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1*(3), 177-187.
- Sagar, S. S., & Stoeber, J. (2009). Perfectionism, fear of failure, and affective responses to success and failure: the central role of fear of experiencing shame and embarrassment.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1*(5), 602-627.
- Schouwenburg, H. C. (1992). Procrastinators and Fear of Failure: An Exploration of Reasons for Procrastin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3), 225-236.
- Schouwenburg, H. C., Lay, C. H., Pychyl, T. A., & Ferrari, J. R. (2004).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emb, G., Glick, D. M., & Spencer, R. E. (1979). Student withdrawals and delayed work patterns in self-paced psychology courses. *Teaching of psychology, 6*(1), 23-25.
- Sharma, M., & Kaur, G. (2011). Gender differences in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Stress among adolescents. *Indian J Soc Sci Res, 8*(1-2), 122-127.

- Sideridis, G. D., & Kafetsios, K. (2008). Perceived parental bonding, fear of failure and stress during class present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2*(2), 119-130.
- Singh, S. (1992). Hostile press measure of fear of failure and its relation to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 proble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3), 397-399.
- Solomon, L. J., & Rothblum, E. D. (1984). Academic procrastination: Fre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 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 Spera, C. (2005). A review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practices,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school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7*(2), 125-146.
- Steel, P. (2002). *The measurement and nature of Procrastin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USA.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Stoeber, J., & Becker, C. (2008). Perfectionism, achievement motives, and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in female soccer playe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3*(6), 980-987.
- Stoeber, J., & Rambow, A. (2007). Perfectionism in adolescent school students: Relations with motivation, achievement,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7), 1379-1389.
- Tan, C. X., Ang, R. P., Klassen, R. M., Yeo, L. S., Wong, I. Y., Huan, V. S., & Chong, W. H. (2008). Correlat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 and students' grade goals. *Current Psychology*, 27(2), 135-144.
- Teevan, R. C. (1983). Childhood development of fear of failure motivation: A replication. *Psychological reports*, 53(2), 506-506.
- Teevan, R. C., & McGhee, P. E. (1972). Childhood development of fear of failure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3), 345-348.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7). Longitudinal study of procrastination, performance, stress, and health: The costs and benefits of dawdling. *Psychological science*, 8(6), 454-458.
-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6), 1401-1418.
- Voicu, D. (1992).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rela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relation to trait procrast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rk University, Toronto, Ontario, Canada.
- Watson, D. C. (2001). Procrastination and the five-factor model: A facet 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1), 149-158.
- Weeda-Mannak, Winny, L., & Drop, M. J. (1985). The discriminative valu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anorexia nervosa. Clinical and psychometric comparison between anorexia nervosa patients, ballet dancers and control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19(2), 285-290.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Failure

Lee, Ji W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For this study, survey was conducted to 481 students sampled in boys' and girls' high school located in Seoul. Inventory of Perceived Parent-Children Rearing Attitude Questionnaire, Aitken Procrastination Inventory(API),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Revised(PFAI-R) were administer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cademic procrastination had nega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fear of failure. It means if parenting attitude is positive, academic procrastination level goes down whereas high standard of fear of failure affect academic procrastination level goes up. Second,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o identified the mediating effects of fear or failure. It demonstrated that fear of failure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at is perceived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ve an decrease effect on fear of failure, and this influenc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level goes down.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Fear of Failure, Mediating Effect.

부 록

부록 1. 부모양육태도 척도

부록 2. 학업지연행동 척도

부록 3. 실패공포 척도(PFAI-R)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현재 석사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부모님의 양육태도와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지를 주의 깊게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예 :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모든 문항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알 수가 없으며,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질문지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평소 생각, 느낌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질문들이 제시된 순서대로 답하시고,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나, 제시되는 모든 질문들에 답해주시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이메일 하십시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지도교수 이 정 윤

석사과정 이 지 원

wldnjsl234@hanmail.net

“위에 기술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본인의 나이는 만 18세 이하이며, 이 연구 참가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설문지 작성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

부록 1. 부모양육태도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이 평소 느꼈던 부모님의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물건까지 전부 사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공부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면 부모님은 싫어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화가 나실 때 식구들한테 화풀이 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냐며 핀잔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형제들을 야단치실 때 차별하는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내가 실수로 일을 잘못했을 때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위인들의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기분이 나쁠 때는 내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시는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가족들과 함께 오락회를 열거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나의 말과 행동에 별로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 하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내가 끈질기게 조르면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허락해 버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 말을 아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나에게 관한 일을 부모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하던 일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손님이 오셨을 때와 보통 때에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다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22. 부모님은 나의 일을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하라고 자주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4. 부모님은 기분이 좋을 때는 잘 해 주시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야단치시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아시는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애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26.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7.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생겨 그 일에 열중해 있으면 부모님은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나무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8. 부모님은 내게 벌을 주실 때 보통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9.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0.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부모님은 새로운 일이나 여행은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2. 부모님은 비록 청소년의 말이라도 이치에 맞는 말이면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3.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부모님은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5. 부모님은 내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6. 부모님은 잘못하게 된 원인이나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꾸중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7.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38. 부모님은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39. 부모님은 내 능력이나 힘에 좀 벅찬 일이라도 나에게 해보라고 권하시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0. 부모님은 가끔 적당하지 못한 명령을 무조건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학업지연행동 척도

♣ 다음은 평소 자신의 학습 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공부나 숙제를 시작하지 않고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해야 하는 공부나 숙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숙제를 해서 정해진 날짜에 늦지 않도록 숙제를 마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나 학원에 자주 늦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교에서 자습시간이나 빈 시간이 생기면 저녁에 해야 할 숙제나 공부를 미리 시작해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숙제를 너무 오래 미루어서 결국 끝내야 할 시간에 숙제를 다 완성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종종 숙제를 끝내야 할 시간이 다 되어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종종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나 숙제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준비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매우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라면 나는 가능한 빨리 공부를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곧 시험기간인데도, 시험공부 대신 때때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스마트폰, TV, 친구랑 놀기 등).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종종 정해진 기한이 되기 전에 숙제를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해야 할 숙제나 시험공부를 즉시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대체로 학교 수업에 지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여 종종 일을 미루지만 실제로는 다 해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실패공포 척도(PFAI-R)

♣ 다음은 어떤 일을 못해내어 실패경험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못해내고 있을 때…….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게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3. 그것은 내게 중요한 사람들(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족한 내 재능을 탓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미래 계획들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중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충분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그것은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을 망쳐버리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잘 해낼 때에 비해 나는 덜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덜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로 인해 나의 미래 계획이 영향 받게 될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들은 내게 보다 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쉽게 내 자신을 나무란다.	①	②	③	④	⑤
16. 성과가 나도록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오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람들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이 이를 보고 있다면 나는 당황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은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가 못해내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에게 대해 못 미더워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느끼게 되리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의 가치가 감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 또는 간단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나이 : 만 _____ 세
3.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4. 가족형태
① 부모와 모두 동거 ② 아버지와만 동거 ③ 어머니와만 동거
5. 아버지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6. 어머니 학력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린 문항은 없는지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